

강진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강진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읍·면 위촉 560여명 보증인 대상 교육 실시 “사실관계 따라 공정하게 보증업무 수행 당부”

군은 5월 각 읍·면 112개 법정리에 558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강진읍을 시작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마스크 필수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및 유의사항,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업무처리 요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증인들의 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했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군은 신청된 건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한 후 2개월간 공고한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신청해 등기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단,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계 감염 등의 해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적용함에 따라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대상(상속

제외)이 된다. 또한 자격보증인(번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보증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위촉된 보증인은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예전과 달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사전에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430-3441~3)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찾아가는 교육사업·진학 설명회 고려대 입학사정관 초청...1:1 맞춤형 상담

완도군은 지난 18일 완도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학생·학부모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사업 및 진로·진학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던 때로 입장 시 2m 거리두기, 좌석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에서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놓여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완도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신우철 완도군수의 특강과 더불어 (재)장보고장학회 사무국장의 완도군 교육사업 설명이 있었다. 이어 진로·진학 설명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초빙해 학생부 종합전형반 안내, 수시모집 지원 전략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설명과 1: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완도=김광수 기자

‘섬 방문 거절’...완도 여서도 주민들 코로나19 대응 결정

27일까지 입도 통제
주민 자발적 조치 눈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해안 유명 낚시 관광지인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의 주민들이 오는 27일까지 입도를 통제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여서도 주민들은 최근 마을총회를 갖고 오는 27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지인 입도를 막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입도 통제를 결정한 여서도 주민들은 추후 코로나19 진

행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이 즐겨찾는 여서도는 53가구 78명이 거주하는 섬으로 지난 3월19일부터 6월4일까지 한차례 입도 통제를 시행했다. 통제조치가 풀린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으며 특히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100명이 넘는 낚시객들로 민박이 부족할 정도였다. 이를 뒤로 하고 또다시 입도 통제를 결정할 것은 청정 완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그동안 완도



여서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여서도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청정한 완도를 지키기 위해 섬 방문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공공시설·경로당 등 운영 중단

진도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체 이행방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은 인적·물적 자원 등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원천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정부지침에 따라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의 대군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공공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운영 중단과 함께 노인요양병원·장애인

생활시설의 외부인 면회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상시착용, 회식·모임 자제, 개인 방역 수칙준수 등을 실천토록 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유흥주점·노래방·PC방·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도 중단했다. 진도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진도대교 발열검사장, 외국인 입국자·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진도=조성용 기자

“무더위로 지친 몸, 해남 먹거리로 치유하세요”

이달의 추천관광지 닭코스 요리, 감자빵·고구마빵 선정



해남 토종닭 코스 요리와 감자빵, 고구마빵이 전남도 이달의 추천 관광지에 선정됐다. 먹거리를 통한 치유 관광을 테마로 한 이번 추천관광지 선정을 통해 토종닭 코스요리는 9월 보양 음식, 감자빵과 고구마빵은 12월 달콤한 디저트에 뽑혔다. 해남 닭코스요리는 시골에서 키운 신선한 닭 한 마리를 회, 구이, 백숙, 주물럭, 죽 등으로 코스 요리화했다. 아들야들한 가슴살을 저며낸 닭 육회, 고추장 양념으로 볶아낸 주물럭, 기름기를 짝 빼고 바삭하게 구운 닭구이, 닭 한마리를 그

대로 삶아낸 보양 백숙, 깔끔한 마무리 닭죽까지 다양한 조리법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해남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해남읍과 삼산면을 중심으로 10여개소의 닭·오리 요리를 취급하는 닭요리촌이 형성되어 있다. 12월의 달콤한 겨울 테마에 선정된 P와 SP는 해남의 감자, 고구마로 만들어진 감자(Potato)빵과 고구마(Sweet Potato)빵이다. 끈득한 반죽속을 각각 감자, 고구마로 가득 채웠으며 빵도양도 감자와 고구마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해남읍에 위치한 카페 다미당과 베이커리 피낭시에에서 만날 수 있다.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